www.GongPlant.co.kr
사장해야! 관리해야! 부도당하기 전같이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해외 및 시지역, 댁은 출퇴근 2번 출구 입
성지순례 패밀리투어 맞춤(3박2일) 환공건
또 다른 감동을 만나는 천국의 여행!
(두)마야투어 조승환 회장
www.mayatour.co.kr 02-722-9001 010-8443-9001

1960년 1월 2일 창간 주간지 발행

佛教新聞

불기 2556년 5월 5일 (2012년 / 단기 4345년 불력 윤3월15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814호 토

총무원장 자승스님, 어린이날 맞아 '삼흥학교' 위문

'새터민 자녀' 급식 지원한다

〈탈북자〉

격려금도 전달하고 국내정착에 큰 관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어린이날을 맞두고 새터민(탈북자) 자녀 교육사업인 삼흥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다. 지난 4월30일 삼흥학교를 방문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아이들에게 과자세트를 선물하고 피자를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학교에는 50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하며 새터민의 국내 정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삼흥학교는 사단법인 NK지식인연대의 주도로 지난 2010년 1월 개교했다. 생계의 곤란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로, 현재 51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오전에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제도권교육을, 오후에는 북한의 경험을 고려한 학력보충 및 특성화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어에 서툴러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게 되,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2세들을 위한 중국어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린 방문에서 학생들에 급식을 위해 매월 180kg의 쌀을 종단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현재 삼흥학교에는 서울 조계사와 불광사가 달마다 160kg의 쌀을 보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문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혜성스님, 사회복지재단 삼임이사 종산스님도 함께 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취임 후 정기적으로 사찰복지시설을 위문하며 나눔을 실천해 심한다고 말했다.

장영섭 기자 fanti@daum.net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린이날을 맞새 맞은 지난 4월30일 새터민 자녀 교육시설인 삼흥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신재호 기자 sin3hh@daum.net

부처님오신날 연등달기 캠페인

"행복과 평화의 연등을 밝히길…"

연등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명(無明)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광명(光明) 세계에 이르고자 하는 원력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계 최대 명절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이기도 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든 분들이 평복과 평화의 마음을 모아 연등을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붓도 다니는 재래시장은 물론 가까운 동네나 인연 있는 도량에 연등을 밝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 밝아질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불교신문사

용산참사·쌍용차 해고 관련 구속자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 건의

총무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사회통합을 위한 차원에 구속 수감된 용산참사 관련자와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을 원부에 건의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1일 특별사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전달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법무부장관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사회연 위원장 등 용산참사 관련 구속자와 쌍용자동차 한상균 노조 지부장은 사회갈등 해소와 의미가 있음은 물론이고 불교계에서 많은 관심과 지성스러움을 해온 대표적 구속자이므로 특별사면에 반드시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역 정부에서 실시하는 15차례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은 사회갈등으로 구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관용과 화해의 자비심을 깨닫게 해 심리적 평화를 되찾아주어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2월에도 용산참사 관련 구속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4월(일) 쌍용차 해고자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선 특별사면을 위한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동련 경기남부지구 13일 연꽃문화제

불려협 160명 경연 연꽃노래자자 상청

불광사 등 주요 사찰 어린이날 행사 봇물

제90회 어린이날을 맞아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의회(한국불스)는 지난 4월28일 한국불교연수원 문화기념관에서 제24회 어린이·청소년 연꽃노래자자를 개최했다. 이날 노래자자에는 예심은 통과한 독창과 중창·합창팀 등 160여명이 광석에 기량을 뽐냈다. 지난해 연꽃노래자자 대상을 수상한 제2군구부산시 신흥사 소년소녀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동련 경기남부지구(지구장 성봉스님)는 오는 13일 오전10시 외관 청계사에서 제1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주최하고 동련 경기남부지구가 주관하는 이날 연꽃문화제는 글짓기와 그리기에 300여명의 청소년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구장 성봉스님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들이 체험마당을 통해 즐겁게 뛰어놀기 바란다"면서 "자자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불광사 불광법회(회주 지홍스님) 연꽃법회 소속 불동단은 오는 6일 오전11시 불광사 교육원에서 한불가 '꼬마연등' 에 맞춰 공연한다. 연꽃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불영스님은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생 불자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불동을 자랑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서울 조계사, 경주 골굴사, 보광 정광사, 여주 신륵사 등 전국 주요사찰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이상수 · 어연경 기자

"착한 길 들어서도록 힘씁시다"

제8대 총무원장 석주스님 '어린이날 담화'

이상수 기자 sooiee@bulgyo.com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린이에 대한 어른들의 의무를 첫째 어린이에 아집(我執)에서 벗어져 있도록 보호하고, 둘째 선(善)한 일에 들어서도록 이끌어야 하며, 셋째 기능(技能)을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는 어른들의 세계가 보여지고 있는 제약(諸法)속에 매여 있다시피 하고 있으며, 더욱이 물질 위주의 사회에 어른들의 의무는 더욱더 무겁고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세계가 갖는 나쁜 경험을 배워 익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참사 어린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세계에서 광둥(狂動)하고 자아(慈悲)로운 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기능을 습득시키라고 하신 말씀은 어린이가 자라서 사회인으로서 자립(自立)하여 생활하는 힘이 곧 기능이기 때문이며, 자기에게 맞는 기능을 습득하고 거기 종사하므로서 인간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 연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선(善)이며 악(惡)으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어린이로 하여금 벗어져 있도록 해야 하는 악(惡)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에 바른 성장을 막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맑고 명심과 생각에서 까지다도 어린이에 성장을 저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종단의 사부대중은 어린이날인 오늘만이 아닌 모든 날을 그렇게 생활하고 어린이를 맑는 모든 일에 적극적일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세민·정련·지성스님 원로의원 선출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에 세민스님(조계종 제6호계위원) 정련스님(동국대 이사장) 지성스님(광개라는 세상 이사장)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

원로의원이라면 종단스님들는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원로의원실에서 제30차 의의를 개최하고 중앙종회가 추천한 10명의 후보 가운데 세민스님과 정련스님, 지성스님을 새 원로의원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원로의원는 24인으로 꾸려지게 됐다.

원로의원는 종단의 최고의결기구로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종정 추대권, 중앙종회에서 추천한 원로의원 선출권, 종헌 개정안 인준권, 선출된 종무원장에 대한 인준권, 중앙종회 종무원장 불신임 결의에 대한 인준권, 2분 이상 법계 심의권, 전계대화상 추천권, 종단 비상 시 중앙종회 상임 제정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자격은 수행 40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의 원로 대덕이다. 중앙종회의 추천을 받아 원로의원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장영섭 기자

런던올림픽 주목할 불자선수… 7면

一心大覺

大聖 석가모니불의 大覺 佛敎思想을
宣布하며 기미년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이신
용성진종조사의 대각사상·
구국사상·호국사상을 계승합니다.
계승 발전을 통해
불교 정신문화를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일동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훈장 모사본
199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모사

한국불교
지성화
대중화
생활화의
대스승

백용성
조사

불기 2556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음력4월8일(양력6월 8.15)일에 이땅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선생님이 서기 1940년 1월 23일 중국 중경에서 귀국하여 그해 12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입적하시기 기리여 3.1독립운동의 진원지인 서울 종로 대각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방문하여서 불전에 예배하고 용성 진종(眞宗)조사 유언대로 예배드리시고 "**용성진종 스승께서 계속 보내주신 독립운동자금으로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 공포일 미사를 보내주시며 한때 귀국 출발 순국의 시일가 되도록 하여주셨나이다**" 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서울시 영등구 목동 302-2
Tel. (02)765-2701, Fax. (02)741-1385